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6, pp.1-40
<https://doi.org/10.29212/mh.2023.126.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삼국시대 동맹의 성립과 영향*

김덕원 | 명지대학교 사학과 강사

- 목 차
1. 머리말
 2. 동맹의 성립 과정
 3. 동맹의 영향
 4. 맺음말

초 록 삼국시대의 동맹은 5세기 이후 한강유역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었고, 5세기대의 제라동맹, 6세기대의 여라동맹, 7세기대의 제려동맹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동맹마다 각국의 목적과 성격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결과와 영향도 차이가 있었다.

삼국시대의 동맹의 특징은 삼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동맹은 한 번도 없고, 특정 국가를 상대로 각각 다른 두 국가들이 상호 관계를 맺으며 성립하였다. 또한 어느 한 국가만 일방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삼국이 각각 2회씩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는 신라와 당이 주도한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라

가 최대의 이익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

삼국시대의 동맹은 5세기 이후에 삼국의 대내외적인 정세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동맹은 신라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주었고, 결국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한강유역, 제라동맹, 여라동맹, 제려동맹, 삼국통일

(원고투고일 : 2023. 1. 12, 심사수정일 : 2023. 2. 21, 게재확정일 : 2023. 3. 2.)

1. 머리말

동맹은 하나 이상의 국가 사이에 성립되는 외교적인 결과로써 일정한 조건으로 서로 원조를 약속하는 일시적인 결합 상태를 의미한다.¹⁾ 이러한 동맹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국력이 약화되면서 멸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동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국가에서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큰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동맹은 대체로 정치·외교·군사 등의 분야에서 공개적이거나 또는 비공개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목적에 따라 그 성격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맹은 성립하기 이전의 배경, 시기, 목적, 내용, 과정 등과 성립한 이후에는 경과와 종료(또는 결렬), 결과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동맹이 종료(또는 결렬)된 이후에는 그 성격과 영향과 의의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다.

한국사에서의 동맹은 대체로 고대사 특히 삼국시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국시대에 존재하였던 특별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²⁾ 삼국시대의 동맹은 신라·고구려·백제의 친선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2021S1A5B5A17051918)

1)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卷二, 大修館書店, 1984, 1904쪽.

2) 후삼국통일 이후 대내적으로는 고려와 조선으로 계승되면서 통일 왕조가 등장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교류가 군사 활동보다는 대체로 교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국시대만큼 동맹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과 대립의 과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삼국시대에는 비교적 일찍부터 여러 국가들이 교류하면서 상호 친선관계를 형성하였지만, 5세기대 이후에는 한강유역을 장악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을 수행하였다.³⁾ 그 과정에서 삼국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친선관계와 대립관계를 형성하면서 상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삼국의 동맹이 성립하였다.

삼국시대의 동맹은 5세기 이후 한강유역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에서⁴⁾ 각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그리고 5세기대의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하 제라동맹이라 함), 6세기대의 고구려와 신라의 동맹(이하 여라동맹이라⁵⁾ 함), 7세기대의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이하 제려동맹이라⁶⁾ 함)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⁷⁾ 이러한 동맹은 이후 삼국이 상호 친선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당시의 대내외적인 정세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삼국시대 동맹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동맹 모두를 대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느 하나에만 국한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동맹은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상호 연결되었기 때문에 구체

3) 강중훈, 「5~6세기 삼국 간 국경의 변동에 관한 제설의 검토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116, 2014 ; 장창은, 「475~551년 한강 유역 영역변천사 연구동향」, 『역사와 교육』 20, 2015.

4) 선석열, 「한강유역 쟁탈을 둘러싼 삼국의 동맹과 외교」, 『역사와 세계』 44, 2013, 81~119쪽.

5) 여라동맹은 대체로 ‘밀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노태돈, 「고구려의 한수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 1976 ;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6) 제려동맹은 대체로 ‘연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이호영, 「려-제연화설의 검토」, 『경희사학』 9-10, 1982 ; 『신라삼국통합과 려-제 패망원인연구』, 서경문화사, 1997).

7) 제라동맹을 제외하고 여라동맹과 제려동맹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전하지 않지만, 학계에서는 대체로 동맹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삼국시대의 동맹을 검토할 때 동맹에 대한 용어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본고에서는 ‘동맹’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동맹이 성립하는 과정에서는 관련국들 사이에 상호 일정한 의식을 동반하고 있다.⁸⁾ 최근에 제라동맹과 관련하여 동맹이 성립할 때 ‘삽혈’ 의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맹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오류를 제기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⁹⁾ 그러나 가변적인 상황이 많은 국제관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삽혈’을 하지 못하거나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¹⁰⁾ 그리고 ‘삽혈’은 반드시 국가 사이의 동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다.¹¹⁾ 따라서 ‘삽혈’ 의식의 거행 여부로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라동맹의 ‘동맹’을¹²⁾ 제외하면 여라동맹과 제려동맹은 ‘밀약’,¹³⁾ ‘연화’¹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 8) 김병주, 「나제동맹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 46, 1984 ; 공석구, 「나제동맹」을 다시 검토한다, 『백제학보』 30, 2019 ; 이재석, 「고대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관계와 <맹약> -<조공-맹약>체제의 가능성-」, 『한국사학보』 78, 2020 ; 이재석, 「고대 한일 사료에 보이는 <맹약>」, 『한일관계사연구』 67, 2020.
- 9) 공석구, 앞의 논문, 2019, 11~14쪽.
- 10) 649년에 나당동맹이 성립될 때에도(김덕원, 「나당동맹의 성립 과정」, 『민족문화연구』 95, 2022, 30~32쪽) 김춘추와 당 태종 사이에 ‘삽혈’ 의식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삽혈’ 의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나당동맹 역시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 11) 실제로 642년에 김춘추는 고구려에 사신으로 가기 전에 김유신과 ‘삽혈’을 하고 맹세를 하였다(『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상) 참조).
- 12) 대체로 제라동맹만 일관되게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군사협력 관계’(정재운, 「웅진시대 백제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고찰 -나제동맹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호서고고학』 45, 2001, 72쪽 주 22) 참조), ‘군사협력 관계’(공석구, 앞의 논문, 2019, 17쪽), ‘군사협력체제’(위가야, 「5~6세기 백제와 신라의 ‘군사협력체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8) 등의 견해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군사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동맹의 형식과 성격에 관련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동맹에 포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동맹에 참여한 국가들과 관련된 표현에 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동맹의 명칭은 동맹을 먼저 제안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국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한다.¹⁵⁾ 그러나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명칭은 대체로 신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동맹을 주도하였던 국가를 먼저 표현하여 ‘제라’동맹, ‘여라’동맹, ‘제려’동맹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사용의 문제들을 유념하면서 제라동맹, 여라동맹, 제려동맹의 성립과 그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연구성과에서 다루어진 분야는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하고, 다른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
- 13) 여라밀약은 ‘화호’(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1, 2006, 50쪽), ‘협약’(주보돈, 「5~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하여-, 『북방사논총』 11, 2006, 96쪽), ‘통호’(박윤선, 「6세기 중반 고구려와 신라의 통호와 이나 사마도, 『역사와 현실』 77, 2010, 215쪽), ‘담판’(이영재, 「여라밀약설의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0, 2015) 등의 용어가 제기되고 있다.
- 14) 제려연화는 ‘악수’(이병도, 『한국사』 -고대편-, 을유문화사, 1959, 503쪽), ‘연합’(노중국,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역관계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 28, 1981, 99쪽) 등의 용어가 제기되었지만, 이미 ‘동맹’(노계현, 「신라의 통일외교정책연구, 『국제법학논총』 9-1, 1964, 34~40쪽; 이만열, 「삼국의 항쟁,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78, 485쪽; 김수태, 「백제의 멸망과 당, 『백제연구』 22, 1991, 160쪽)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였다.
- 15) 노중국, 앞의 논문, 1981;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2012, 129쪽; 정재윤, 앞의 논문, 2001, 69쪽; 박윤선, 「백제 국제관계사 연구동향과 시기구분 시론, 『백제학보』 13, 2015, 59쪽; 선봉조, 「7세기 제려동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7, 15쪽 주 35) 참조.

2. 동맹의 성립 과정

삼국시대 동맹의 성립 과정은 각각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강유역과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각국의 대내외적인 상황이 반영되면서 제라동맹, 여라동맹, 제려동맹 등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동맹이 성립될 당시 각국의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가. 제라동맹의 성립 과정

4세기 후기에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활발한 정복활동을 통하여 남쪽으로 임진강유역까지 진출하였다. 특히 장수왕은 427년(장수왕 15)에 평양으로 천도를 단행하며 적극적으로 남진정책을 추진하였다.¹⁶⁾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정책으로 인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화친을 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A-1. 가을 7월에 사신을 신라에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¹⁷⁾
- A-2. 가을 7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와 화친을 청하였으므로 이에 따랐다.¹⁸⁾
- A-3. 봄 2월에 사신을 신라에 파견하여 좋은 말 두 필을 보

16) 장창은, 「5~6세기 고구려의 남하와 한강 유역의 영역확장 - 『삼국사기』 지리지 '고구려 고지'의 실제(Ⅱ)-」, 『백산학보』 88, 2010 ;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111~155쪽.

17)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비유왕 7년 가을 7월.

18)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17년 가을 7월.

냈다.¹⁹⁾

A-4. 봄 2월에 백제왕이 좋은 말 두 필을 보냈다.²⁰⁾

A-5. 가을 9월에 (신라에) 또 흰 매를 보냈다.²¹⁾

A-6. 가을 9월에 (백제왕이) 또 흰 매를 보냈다.²²⁾

A-7. 겨울 10월에 왕이 황금과 야광주를 백제에 예물로 보내 보답하였다.²³⁾

A-8. 겨울 10월에 신라가 질 좋은 금과 명주로써 답례하였다.²⁴⁾

위의 기록은 백제와 신라의 화친에 대한 내용이다. 백제는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를 단행하고 남진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신라에 동맹을 제안하였다. 당시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정치적인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였다. 따라서 제라동맹의 성립 배경은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로 인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고, 동맹을 제안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백제가 우위의 위치에 있었던²⁵⁾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라동맹의 성립 시기는 433년(비유왕 7, 눌지마립간 17)과²⁶⁾ 455년(비유왕 29, 눌지마립간 39)으로²⁷⁾ 크게 구분되는데,²⁸⁾

19)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비유왕 8년 2월.

20)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18년 봄 2월.

21)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비유왕 8년 가을 9월.

22)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18년 가을 9월.

2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18년 겨울 10월.

24)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비유왕 8년 겨울 10월.

25) 김창석, 「6세기 전반 신라의 대외관계와 백제관」, 『사학지』 57, 2018, 10~11쪽.

26) 김병주, 앞의 논문, 1984, 29~39쪽.

27) 정운용, 「나제동맹기 신라와 백제 관계」, 『백산학보』 46, 1996, 91~104쪽.

28) 제라동맹의 성립 시기에 대한 연구성과는 위기야, 「나제동맹의 공수 전략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4, 2020, 51~52쪽 참조.

433년이 좀 더 타당할 것 같다.²⁹⁾ 위의 사료 A와 같이 433년에 제라동맹이 성립된 이듬해에 백제와 신라는 3회에 걸쳐서 교류를 실시하였다. 양국이 처음으로 교류를 시작한 시기 63년(탈해이사금 7)³⁰⁾ 이후에 이렇게 빈번한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양국 사이에 특별히 중요한 일이 발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493년(동성왕 15)에 백제가 신라에 혼인을 요청하였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국왕이 혼인할 때보다 더 많은 교류를 하였다는 사실은 국왕의 혼인만큼 중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³¹⁾ 그리고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한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제라동맹을 검토할 때 주목되는 것은 제라동맹은 5세기와 6세기의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면서 시기적으로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이다. 즉 제라동맹은 대체로 5세기 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내용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시

29) 433년에 백제와 신라의 교류는 선린 우호관계의 수준(정운용, 앞의 논문, 1996, 101쪽), 일종의 ‘상호불가침’ 협정(주보돈, 『웅진도읍기 백제와 신라의 관계』,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 서경, 2003, 190쪽; 유우창, 『5세기대 ‘나제동맹’의 성립과 가라국』, 『부대사학』 30, 2006, 195쪽) 등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30)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7년 겨울 10월;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다루왕 36년 겨울 10월.

31) 434년의 교류 이후 455년에 신라가 군사를 파견할 때까지 백제와 신라의 교류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리고 455년 9월에 백제 비유왕이 죽고 곧바로 10월에 고구려가 백제를 침입하자 신라가 군사를 파견하여 구원하였다. 아마도 고구려는 백제 비유왕의 죽음 이후에 혼란한 틈을 타서 침입한 것이 아닐까 한다. 비유왕의 죽음은 일상적이지 않으며, 정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양기석, 『5~6세기 전반 신라와 백제의 관계』, 『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 15, 1994; 『백제의 국제관계』, 서경문화사, 2013, 167~189쪽). 그래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고구려의 침입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467년(개로왕 13)까지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라동맹이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또한 455년에 신라가 군사를 파견한 것은 그 이전에 제라동맹이 성립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양국이 아무런 교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군사를 파견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³²⁾ 제라동맹이 약 120여 년 동안 지속되면서 처음 성립되었을 때의 목적이나 내용 등이 일관되게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백제와 신라는 당시 대내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기적으로 그 관계가 변화하였고, 제라동맹 역시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6세기 초기에는 제라동맹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제라동맹은 제1차 제라동맹(433~497)과 제2차 제라동맹(539~554)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³³⁾

제라동맹의 목적은 시기에 따라 조금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제라동맹이 성립된 이후의 과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라동맹기 삼국의 군사적 충돌 양상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라동맹이 성립한 433년부터 종료된 554년까지 백제·신라와 고구려 사이에는 모두 35회의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제라 양국은 모두 8회에 걸쳐서 공동 군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방어전이 7회, 공격전이 1회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35회의 군사적 충돌에서 약 22.8%에 해당하는 것이다.

제1차 제라동맹인 433년부터 497년까지 삼국 사이에는 모두 15회의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백제가 단독으로 고구려를 침입한 1회를 제외하고, 백제와 신라는 14회에 걸쳐 고구려의 침입을 받았다. 백제는 고구려의 부용세력인 말갈의 침입 1회를 포함하여 4회, 신라는 말갈의 침입 1회를 포함하여

32) 박운선, 앞의 논문, 2015, 56쪽; 김병남, 「5세기 말 백제와 신라의 협력 과정 재검토」, 『역사와 경계』 111, 2019, 32쪽 주 3) 참조.

33) 정운용은 나제동맹을 전기(455~500)와 후기(501~554)로 구분하였다(정운용, 앞의 논문, 1996; 「『삼국사기』 교빙 기사를 통해 본 나제동맹 시기의 재검토」, 『백제 연구』 44, 2006).

10회의 침입을 받았다. 특히 고구려는 475년에 백제의 한성을 함락한 이후에는 신라를 집중적으로 침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백제와 신라는 각각 3회씩 모두 6회에 걸쳐 상호 구원군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제라동맹 기간 동안에 백제 3회와 신라 4회, 모두 7회의 구원군 파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인 약 85.7%에 해당 하는 것이다. 한편 고구려의 14회 침략에 백제와 신라가 상호 구원군을 파견한 비율은 6회로, 절반에 가까운 약 42.8%이다. 이 중에서 백제는 10회의 침입을 받은 신라에 3회를 파견하여 30%, 신라는 4회의 침입을 받은 백제에 3회를 파견하여 75%의 비율로 구원군을 파견하였다. 신라는 백제보다 고구려의 침입을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에 구원군을 파견하였다.

이와 같이 제1차 제라동맹의 목적은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침입에 상호 협조하여 방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백제와 신라가 공동으로 방어만 하였던 이유는 당시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군사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³⁴⁾ 따라서 제1차 제라동맹은 攻守同盟보다는³⁵⁾ 방어동맹으로써³⁶⁾ 共守同盟의³⁷⁾ 성격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제는 475년 고구려의 침입으로 백제는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었고,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제1차 제라동맹은 백제는 실패, 신라는 성공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34) 제라동맹기 고구려의 침입과 백제신라의 대응에 대한 문제는 별고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35) 이만열, 앞의 논문, 1978, 471쪽.

36) 김병주, 앞의 논문, 1984, 43쪽; 정운용, 「5세기 신라의 대백제관계와 상호 인식」, 『향토서술』 72, 2008, 88쪽.

37) 신형식, 「신라왕위계승고」, 『유홍렬박사화갑기념논총』, 1971, 74쪽;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앞의 책, 2012, 129~130쪽.

<표 1> 5세기대 고구려의 침입과 백제·신라의 대응

순번	연대		국명	형태	군사 요청		군사 파견		비고
	연	월			백제	신라	백제	신라	
1	450	7	신라	방어		X	X		제라동맹 후 최초의 침입
2	454	8	신라	방어		X	X		고본은 7월로 기록됨
3	455	10	백제	방어	(O)			O	제라동맹 후 최초의 구원군 파견. 신본에만 기록됨
4	468	봄	신라	방어		X	X		고본은 2월로 기록됨
5	469	8	백제	공격	X			X	백제의 단독 공격
6	475	9	백제	방어	O			O	신본은 474년으로 기록됨
7	480	11	신라	방어		X	X		말갈은 고구려의 부용세력임. 신본에만 기록됨
8	481	3	신라	방어		(O)	O		신본에만 기록됨
9	482	9	백제	방어	X			X	말갈은 고구려의 부용세력임. 백본에만 기록됨
10	484	7	신라	방어		(O)	O		신본에만 기록됨
11	489	9	신라	방어		X	X		9월과 연결된 전투로, 고본은 9월로 일괄 기록됨
		10	신라	방어		X	X		
12	494	7	신라	방어		(O)	O		
13	495	8	백제	방어	O			O	
14	496	7	신라	방어		X	X		
15	497	8	신라	방어		X	X		
범례	신본·고본·백본=『삼국사기』 신라본기·고구려본기·백제본기								

()는 추정

6세기의 제2차 제라동맹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551년에 백제와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기 이전까지 고구려는 신라를 침입한 사실이 없는 대신에 백제를 집중적으로 침입하였다. 백제도 이전보다 좀 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화하

면서 고구려에 대한 침입 역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와 신라의 교류 기록은 이전보다 확연하게 줄어들었다.³⁸⁾ 또한 이 시기에 신라가 구원군을 파견한 것은 554년에 관산성 전투가 발생하기 이전에 9회의 침입을 받을 동안 단 1회인 약 11.1%에 불과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538년에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이후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다시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성왕은 사비로 천도한 이듬해인 539년에 고구려로부터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일시 중단된 제라동맹을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 신라에 재성립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신라는 법흥왕대에 대내외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제의 제안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는 539년에 백제와 신라가 공동으로 기록이 누락되었는데, 아마도 이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제라동맹이 재성립되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550년에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을 빼앗자, 곧이어 고구려는 백제의 금현성을 빼앗았다. 이때 신라는 양국이 피로한 틈을 이용하여 두 성을 모두 차지하였다.³⁹⁾ 신라가 동맹관계인 백제를 공격하는 것은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백제는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유역의 회복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⁴⁰⁾

38) 이와 관련하여 백제와 신라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김병주, 앞의 논문, 1984, 35~36쪽), 신라와 고구려와의 관계 개선 도모(양기석, 앞의 논문, 1994; 앞의 책, 2013, 180~181쪽), 신라의 내적 발전의 치중(정운용, 「5~6세기 신라 대외관계사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6, 119~120쪽), 신라의 내부 정비에 치중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정재윤, 앞의 논문, 2001, 81쪽),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암중 모색하던 시기(김창석, 앞의 논문, 2018, 14쪽) 등의 견해가 있다.

39)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1년 봄 정월 및 3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551년에 백제와 신라는 상호 연합하여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였다. 이것은 제라동맹기에 백제와 신라가 최초로 고구려를 침입한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연합하였던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제2차 제라동맹은 攻守同盟의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이후 553년 신라는 백제가 차지하였던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면서 제라동맹은 실질적으로 와해되었다. 그리고 554년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백제는 신라를 침입하였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함으로써 제라동맹은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다.⁴²⁾ 따라서 제2차 제라동맹도 백제는 실패, 신라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6세기대 고구려의 침입과 백제신라의 대응

순번	연대		국명	형태	군사 요청		군사 파견		비 고
	연	월			백제	신라	백제	신라	
1	501	10	백제	공격	X			X	백제 단독 공격. 고본에는 503년 11월로 기록됨
2	502	11	백제	공격	X			X	백제의 단독 공격
3	503	9	백제	방어	X			X	말같은 고구려의 부용세력임. 백본에만 기록됨
4	506	7	백제	방어	X			X	"
5		11	백제	방어	X			X	고본에만 기록됨

40) 이에 대한 연구는 김덕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배경」, 『서울과 역사』 109, 2021, 28~30쪽 참조.

41) 백제는 신라와 공동으로 고구려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침입하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共攻’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의 방어 위주보다는 공격을 많이 하였다는 측면에서 ‘攻’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유우창은 6세기를 기점으로 ‘방어동맹’에서 ‘공격동맹’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유우창, 「5~6세기 ‘나제동맹’의 전개와 가야의 대응」, 『역사와 경계』 72, 2009, 136~146쪽).

42) 김덕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 『군사』 121, 2021.

6	507	10	백제	방어	X			X	
7	512	9	백제	방어	X			X	
8	523	8	백제	방어	X			X	
9	529	10	백제	방어	X			X	
10	540	9	백제	공격	X			X	백제의 단독 공격
11	548	정월	백제	방어	O			O	백제의 단독 공격
12	550	정월	백제	공격	X			X	백제의 단독 공격
13		3	백제	방어	X			X	
14		(3)	백제-고구려	공격					제라동맹 성립 이후 신라 최초의 제려 공격. 백본은 기록이 없음
15	551	9	고구려	공격	(O)	(O)	(O)	(O)	제라동맹 성립 이후 최초의 합동 공격. 백본은 기록이 없음
16	553	7	백제	공격					신라가 신주를 설치함
17	554	7	신라	공격					제라동맹 성립 이후 백제 최초의 신라 공격
18		9	신라	방어					유사에만 기록됨
19		10	백제	방어					
20		12	신라	공격					백제 성왕 전사함. 서기에는 12월로 기록됨
범례	고본·백본=『삼국사기』 고구려본기·백제본기, 유사=『삼국유사』, 서기=『일본서기』								

()는 추정

나. 여라동맹의 성립 과정

고구려는 남진정책을 추진하면서 475년에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유역을 확보하며⁴³⁾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

다. 그러나 안원왕대 이후에는 대내적으로 왕위계승과 관련하여 귀족세력들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돌궐 등과 대립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B-1. ... 이때 혜랑법사가 그 무리를 거느리고 길가로 나왔다. 거칠부가 말에서 내려 군례로 인사를 올리고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옛날 유학할 때 법사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연히 서로 만나니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혜랑법사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를 그대 나라로 데려가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에 거칠부와 함께 수레를 타고 돌아와서 그를 왕에게 뵈게 하니, 왕이 승통으로 삼았다. ... 44)

B-2. 이 해에 고구려에 대란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살해당하였다<『백제본기』에는 “12월 갑오에 고려국의 세군과 추군이 궁궐의 문에서 싸웠는데, 북을 치면서 전투를 벌였다. 세군이 패하였으나 사흘 동안 군사를 해산하지 않았다. 세군의 자손을 모두 사로잡아 죽였다. 무술에 박국의 향강상왕이 죽었다.”라고 하였다.>.⁴⁵⁾

B-3. 이 해에 고구려에 대란이 있었다. 무릇 싸우다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였다<『백제본기』에는 “고구려에서 정월 병오에 중부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이가 8살이였다. 박왕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43) 이호영, 「고구려신라의 한강유역 진출문제」, 『사학지』 18, 1984 ; 앞의 책, 1997 : 이정범, 「5~6세기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형태」, 『고구려발해연구』 51, 2015.

44)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칠부.

45) 『일본서기』 권19, 흠평기 6년 시제.

정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중부인이 세자를 낳았는데, 그의 외할아버지가 추군이였다. 소부인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외할아버지는 세군이였다. 박왕이 병에 걸려 위독해지자 세군과 추군이 각각 부인이 낳은 아들을 즉위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세군 측에서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였다.”라고 하였다.>.46)

- B-4. 가을 9월에 돌궐이 신성으로 와서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자 백암성으로 옮겨 공격하였다. 왕이 장군 고희를 보내 군사 1만 명으로 막아 싸워서 이기고, 1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47)

위의 기록은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상실하기 이전의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고구려는 대내적으로 왕위계승 과정에서 추군과 세군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였고,48) 대외적으로는 돌궐 등의 침입으로49) 정국이 혼란하였다. 그리고 551년에는 제라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백제와 신라의 침입을 받고 한강유역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라동맹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삼국시대의 동맹 중에서 여라동맹에 대한 기록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는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라와 동맹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여라동맹이 성립하였던 것으로 이해하

46)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7년 시세.

47)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원왕 7년 가을 9월.

48) 이홍직, 「일본서기 소재 고구려 관계 기사고(1)」, 『동방학지』 1, 1954 ;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71, 157~162쪽 ; 노태돈, 앞의 논문, 1976 ; 앞의 책, 1999, 397~401쪽. 김진한, 「양원왕대 고구려의 정국동향과 대외관계」, 『동북아역사논총』 17, 2007 ; 『고구려 후기 대외관계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0.

49) 노태돈, 앞의 논문, 1976 ; 앞의 책, 1999, 401~429쪽.

는 경향이 강하다.⁵⁰⁾ 따라서 여라동맹의 성립 배경은 백제와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이후에 변화된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라동맹을 제안하고 주도한 것은 신라로 이해하거나 고구려로 이해하는 견해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⁵¹⁾ 당시 신라는 한강 상류지역을 차지하고 10군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다소 느긋한 입장이었던 반면에 고구려는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와의 협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고구려에게는 유리하였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진흥왕은 고구려가 밀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²⁾ 따라서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고구려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다.⁵³⁾

여라동맹의 성립 시기는 대체로 백제와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한 이후부터 관산성 전투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552년 5월 이전에는 성립하였을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⁵⁴⁾ 따라서 여라동맹은 신라가 한강 상류지역을 차지한 직후에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라동맹은 성립 시기에만 주목하고 종료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고구려와 신라는 각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료되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50) 최근에 여라동맹을 부정하는 견해들이 새롭게 제기되었다(선석열, 앞의 논문, 2013; 강민식, 「552년 백제의 한강유역 포기[棄]와 신라-고구려의 밀약설」, 『선사와 고대』 40, 2014; 이영재, 앞의 논문, 2015; 임평섭, 「신라 진흥왕대 주의 폐치와 순수-진흥왕순수비를 통해 살펴본 순수외의 전략적 의미」, 『신라문화』 48, 2016).

51)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113쪽 주 37) 및 주 38) 참조.

52)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흥왕.

53)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113쪽.

54)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111~112쪽 주 34) 참조.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⁵⁵⁾ 따라서 여라동맹은 단기간 동안 운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양국의 관계는 603년에 고구려가 신라의 북한산성을 침입하기⁵⁶⁾ 이전까지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여라동맹의 목적은 고구려와 신라가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고구려는 서북방지역의 안정이, 신라는 한강유역의 장악이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고구려는 서북방지역의 복제와 돌궐과의 관계에 좀 더 치중하기 위해서였고, 신라는 백제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목적은 여라동맹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던 것 같다. 즉 고구려는 대외적으로 서북방지역의 안정에 집중하였지만, 그렇다고 남방지역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전의 잠재적인 위협세력에서 이제는 현실의 절대적인 위협세력으로 대두한 백제와 신라의 협력관계를 무력화하여 제라동맹을 와해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⁷⁾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대내적으로는 548년부터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정국을 안정시키려고 하였다.⁵⁸⁾ 한편 신라는 백제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 하류지역을 빼앗아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가야지역까지 진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⁵⁹⁾ 그 결과 고구려와 신라는 각각

55) 이영재는 553년 10월의 백합야새 전투 이전에 고구려와 신라 간의 협상이 마무리되어 이전의 관계로 정리되었다고 하였다(이영재, 앞의 논문, 2015, 97쪽 주 57) 및 101~102쪽).

56)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진평왕 25년 가을 8월 ;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양왕 14년.

57) 노중국, 앞의 논문, 2006, 49~50쪽 ; 후보돈, 앞의 논문, 2006, 104쪽 ; 양기석, 「관산성 전투의 양상과 영향」, 『중원문화논총』 12, 2009, 24쪽 ; 이영재, 앞의 논문, 2015, 89~90쪽. 어쩌면 이것이 고구려가 길로리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원하였던 실질적인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58) 김진한, 앞의 논문, 2007 ; 앞의 책, 2020.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여라동맹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⁶⁰⁾

이와 같이 여라동맹의 목적과 내용을 감안하면 그 성격은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한강유역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침동맹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신라는 동맹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구원하는 군사적인 행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553년에 백합야 전투와⁶¹⁾ 554년에 웅천성 전투⁶²⁾ 등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신라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제려동맹의 성립 과정

642년에 백제의 의자왕은 왕족과 대신 40여 명을 섬으로 귀양을 보내면서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후 신라 서쪽의 40여 성을 빼앗았고,⁶³⁾ 서쪽 변경지역의 요충지인 대야성을 함락시키면서⁶⁴⁾ 신라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같은 해에 고구려에서는 연개

59)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117쪽. 한편 신라는 고구려가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되었지만(이영재, 앞의 논문, 2015, 89~90쪽), 이러한 견해에는 몇 가지 의문이 든다. 첫째, 신라가 빼앗은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권을 고구려가 왜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둘째, 고구려가 인정해 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셋째, 이전에도 삼국이 상대방의 영토를 빼앗아서 차지하면 상호 인정해 주고 인정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영토를 상실한 쪽에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과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협상의 주도권은 언제나 승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60) 김덕원, 앞의 논문, 2021, 116쪽.

61)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4년 겨울 10월.

62)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7, 양원왕 10년 겨울 ;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5, 위덕왕 원년 겨울 10월.

6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가을 7월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년 가을 7월.

소문이 정변을 일으키면서 정권을 장악하였다.⁶⁵⁾ 이후 백제와 고구려는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C-1. 8월에 또 고구려와 함께 모의하여 당항성을 빼앗아 당과 통하는 길을 끊으려 하였으므로 왕이 사신을 보내 태종에게 위급함을 알렸다.⁶⁶⁾
- C-2. 가을 9월에 당에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고구려와 백제가 저희 나라를 여러 차례에 걸쳐 침범하여 수십 개의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군대를 연합하여 기필코 그것을 빼앗고자 장차 이번 9월에 크게 군사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⁶⁷⁾
- C-3. 가을 9월에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백제가 우리나라의 40여 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다시 고구려와 군사를 연합하여 입조하는 길을 끊으려 합니다.”라 말하고, 군사를 보내 구원해 주기를 청하였다.⁶⁸⁾
- C-4. 겨울 11월에 왕이 고구려와 화친하고 신라의 당항성을 빼앗아 (당에) 조공하는 길을 막고자 하였다. 마침내 군사를 보내어 공격하니, 신라왕 덕만이 당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군사를 철수하였다.⁶⁹⁾

6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8월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2년 8월 ; 『삼국사기』 권47, 열전7, 죽주.

65)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8, 영류왕 25년 겨울 10월 ; 『삼국사기』 권49, 열전9, 개소문.

66)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년 8월.

67)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2년 가을 9월.

68)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2년 가을 9월.

69)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3년 겨울 11월.

위의 기록은 백제와 고구려가 화친하였다는 내용이다. 백제와 고구려의 화친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이에 대한 내용이 『삼국사기』에 수록된 각국의 본기 등 국내 사서뿐만 아니라 『구당서』 등의 중국 사서에도 수록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려동맹은 삼국 모두와 관련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⁷⁰⁾

제려동맹이 성립한 배경은 당시 백제와 고구려가 공통적으로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던 것 같다. 즉 백제 의자왕은 642년에 신라를 침입하여 서쪽의 40여 성을 비롯하여 서쪽 변경지역의 요충지인 대야성을 함락시키면서 강경책을 실시하였다. 고구려 역시 같은 해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였다.⁷¹⁾ 이와 같이 제려동맹은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실시하였던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는 ‘실지양단’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⁷²⁾ 대체로 642년에서 643년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⁷³⁾ 따라서 제려동맹은 이 무렵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70) 제려동맹에 대한 연구성과는 김덕원, 앞의 논문, 2022, 18~19쪽 참조. 한편 박운선은 『문관사림』 「당태종여백제의자왕서」를 인용하면서 백제는 고구려와 연화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백제와 고구려의 연화 즉 동맹을 부정하였다(박운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백제의 입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7, 2007, 23쪽 주 60) 참조). 그러나 백제가 고구려와 연화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역으로 신라가 양국이 연화하여 공격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히 백제가 해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연화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백제의 해명은 사실이고 신라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71) 김덕원, 「고구려 연개소문의 대백제신라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총』 45, 2016, 140~144쪽.

72) ‘실지양단’에 대한 연구성과는 박운선, 앞의 논문, 2015, 71쪽 주 80) 참조.

73) 박운선, 앞의 논문, 2007, 14쪽 주 33) 참조.

보인다.⁷⁴⁾ 백제는 642년에 신라 서쪽의 변경지역에 대한 공격을 추진하면서 고구려와 연합하여 당항성을 공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⁷⁵⁾ 사전에 신라에 누설되면서 실행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러다가 643년에 이전의 계획을 다시 추진하면서 고구려에 제안하였고, 고구려가 이것을 수용하면서 제려동맹이 성립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⁷⁶⁾ 그러나 645년에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과 이후에도 당의 침입이 계속되면서 고구려는 여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아마도 제려동맹은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단기간 동안 운영되며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⁷⁷⁾ 이후 양국의 관계는 655년에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 북쪽 변경지역을 침입하기 이전까지 상호 교류하였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제려동맹의 목적은 백제와 고구려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즉 백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74) 후보돈은 640년대 후반 이후에는 실제로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주보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내정』, 『한국학논집』 20, 1993 ;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81쪽 주 28) 참조), 박윤선은 655년 이후로(박윤선, 『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김영관은 655년에 여제동맹을 실현했다고 하였다(김영관, 『국제정세의 변화』,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6,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92~93쪽). 한편 백제와 고구려는 역사적으로 화친하였던 시기가 없었다거나(박윤선, 앞의 논문, 2007, 22쪽) 한 번도 사신을 교환한 적이 없다는(이영재, 앞의 논문, 2015, 88쪽 주 21) 참조) 견해도 있다.

75)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백제와 고구려가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하는 기록이 642년에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백제는 의자왕이 즉위한 이후에 고구려에 동맹을 제안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당시 고구려는 대내적으로는 연개소문과의 갈등, 대외적으로는 당과의 문제가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백제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76) 김덕원, 앞의 논문, 2022, 19~20쪽. 한편 642~643년 무렵에 고구려는 연개소문의 정변을 전후하여 국내 정세가 어수선하였고, 당의 침략도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라를 공격하거나 백제와의 연합은 어렵다고 이해하기도 한다(박윤선, 앞의 논문, 2007, 17~19쪽 ; 방용철, 『여제 연합설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62, 2016, 298쪽).

77) 김덕원, 앞의 논문, 2022, 24쪽.

신라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당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은 당이 신라를 도와서 삼국의 상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통적인 목적이었을 것이다. 만약에 당이 개입한다면 양국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려동맹의 내용은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는데 고구려의 군사적인 협조가 필요하였고, 고구려는 남쪽 국경지역에서 백제가 신라를 군사적으로 견제해 주기를 기대하였던 것 같다.⁷⁸⁾ 그 결과 백제는 고구려와 연합하여 당항성을 공격함으로써 신라를 위기로 몰아넣었고, 고구려 역시 백제가 남쪽 국경지역에서 신라를 견제해 줌으로써 645년에 당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었다.⁷⁹⁾ 따라서 양국은 각각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양국의 성과는 신라의 대응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양국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당외교를 전개하였고, 마침내 당이 삼국의 문제에 개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양국이 가장 우려하였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제려동맹은 양국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양국이 신라에 멸망을 당하였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오히려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려동맹의 목적과 내용을 감안하면 그 성격은 백제와 고구려가 상호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는 共攻同盟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제려동맹은 신라와 당 사이에 나당동맹이 성립할 수 있게 하였던 원인을 제공하였다.

78) 김택원, 앞의 논문, 2022, 20쪽 및 24쪽.

79) 고구려는 이미 여려동맹을 통해서 서북방지역의 안정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전략적인 효과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3. 동맹의 영향

가. 제라동맹의 영향

계제라동맹의 성립은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위협을 받고 있었던 백제와 신라의 정국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었다. 제라동맹 성립 이후에 최초의 군사적 충돌은 고구려와 신라의 사이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D-1. 가을 7월에 고구려의 변방 장수가 실직의 들에서 사냥하는 것을 하슬라성 성주 삼직이 군사를 내어 불의에 공격하여 그를 죽였다. 고구려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내가 대왕과 우호를 닦은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군사를 내어 우리의 변방 장수를 죽이니, 이는 어찌 의리 있는 일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서쪽 변경을 침입하였다. 왕이 겸손한 말로 사과하자 물러갔다.⁸⁰⁾

D-2. 신라 사람들이 습격해서 변경의 장수를 죽였다. 왕이 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려고 하였지만,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 사죄하였으므로 그만두었다.⁸¹⁾

위의 기록은 제라동맹 성립 이후 최초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80)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34년 가을 7월.

81)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38년.

내용이다. 450년(눌지마립간 34)에 실직의 들에서 사냥하는 고구려의 변장을 하슬라 성주 삼직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신라의 서쪽 변경지역을 침입하였지만, 눌지마립간이 사과하자 고구려군이 철수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은 고구려가 실직을 포함하여 동해안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구려 변장이 사냥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것은 군사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⁸²⁾ 고구려의 장수왕이 화를 냈던 이유는 신라가 고구려 변장을 죽인 것보다는 고구려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하면 장수왕은 군사훈련 중인 고구려의 변장을 살해한 것을 신라가 기습공격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던 듯하다. 이후 신라의 눌지왕이 신속하게 사과함으로써 더 이상의 충돌 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제라동맹이 성립한 이후에 고구려와 최초의 군사적인 충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구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아마도 지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즉 거리상 실직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백제가 구원군을 파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리적인 문제는 이후에도 양국이 구원군을 파견할 때 어려움을 겪었고,⁸³⁾ 제라동맹의 현실적인 약점으로 작용하였다.

450년 이후에 ‘고구려 간섭기’를 벗어나기 위한 신라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고구려도 강력하게 대

82) 고구려에서는 사냥이 군사훈련의 기능을 하였다(김영하, 『한국고대사회의 군사와 정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2, 27~34쪽 참조).

83) 정재윤은 489년의 전투와 같이 백제의 구원이 힘든 곳은 고구려가 조장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였다(정재윤, 앞의 논문, 2001, 77쪽).

응하면서 양국의 충돌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E. 3월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에 쳐들어와 호명성 등 7성을 빼앗고, 또 미질부로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가 백제·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여러 길로 나누어 그들을 막았다. 적이 패하여 물러가므로 뒤쫓아 니하의 서쪽에서 공격하여 깨뜨렸는데, 1천여 명을 목 베었다.⁸⁴⁾

위의 기록은 고구려가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입한 내용이다. 481년에 고구려는 신라의 북쪽 변경을 침입하여 미질부까지 진군하였다.⁸⁵⁾ 아마도 고구려는 475년에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켰던 것처럼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을 함락시키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⁸⁶⁾ 왜냐하면 수도를 함락시키는 것은 상대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⁸⁷⁾ 신라는 고구려가 경북 내륙이 아니라 동해안을 따라 미질부까지 침입하자 백제의 경우와 같이 수도를 함락시키려는 의도를 간파하였던 것 같다. 신라는 불과 6년 전인 475년에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를 함락시킬 때 구원군을 파견하여 당시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며 고구려의 위력을 실감하였다.⁸⁸⁾ 그리하여 비록 기록에는 없

84)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3년 3월.

85) 당시 고구려가 신라의 영토 깊숙한 지역까지 침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광개토왕대인 영락 10년 경자년(400)에 보병과 기병 5만 명으로 신라를 구원하였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 같다.

86) 김병남, 「백제 웅진시대의 북방 영역」, 『백산학보』 64, 2002, 145쪽; 유우창, 앞의 논문, 2006, 207쪽.

87) 고구려가 수도를 함락시키려고 한 것은 아마도 246년(동천왕 20)에 위의 유주자사 관구검과 342년(고국원왕 12)에 전연의 모용황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되었던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8) 김창석, 앞의 논문, 2018, 12~13쪽.

지만,⁸⁹⁾ 위급한 상황을 백제에게 알리고 구원군을 요청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481년 고구려의 신라 침입 이후에 삼국은 모두 제라동맹의 위력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백제와 신라는 제라동맹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고구려는 강력한 적대 세력이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한다.⁹⁰⁾ 그리고 이러한 인식들이 이후 삼국의 대외관계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제라동맹은 삼국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정비를 실시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백제는 475년 고구려의 침입으로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으며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이후 551년에 신라와 함께 한강유역을 회복하였지만, 553년에 신라에게 다시 빼앗겼다. 그리고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면서 세력이 약화되었다. 한편 고구려는 문자명왕대 이후에 귀족세력들의 분열과 중국 남북조와의 관계 등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체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나. 여라동맹의 영향

여라동맹의 성립은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한 상황에서 삼국의 정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신라가 한강유역을

89) 삼근왕의 죽음은 비정상적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성왕의 즉위도 이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정구복 외, 『역주 삼국사기』 3-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740쪽 주 31) 참조). 동성왕이 즉위한 이후 초기 3년 동안의 기록이 없는 것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90) 김병주는 고구려가 적극적으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제라동맹을 강대한 세력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김병주, 앞의 논문, 1984, 40~41쪽). 그러나 이것은 정기적인 사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장악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기록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라동맹에 대한 기록은 더욱 그러하여 이와 관련된 기록은 전하지 않고 있다.⁹¹⁾ 따라서 여라동맹의 영향은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신라와 동맹을 제안하였던 고구려는 당시 서북방지역의 북제와 돌궐과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와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세력에게 좀 더 치중할 수 있었고, 또한 현실의 위협 세력인 제라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대외적인 문제들이 다소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대내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동맹의 또 다른 당사자인 신라는 백제의 동북쪽 변경지역을 빼앗은 후에 이곳에 신주를 설치하면서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낙동강유역의 가야지역까지 진출하였고, 562년에는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이제 신라는 명실상부하게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편 백제는 애써 찾은 한강유역을 다시 신라에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까지 전사하면서 다시 세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제라동맹이 결렬됨으로써 지금까지 동맹관계를 유지하였던 신라와는 적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외적으로도 고구려와 신라의 견제를 받으면서 열세를 보이게 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신라가 취한 행동에 대한 문제이다. 즉 당시 신라는 백제와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새롭게 고구려와도 동맹관계를 형성하였다. 다시 말하면 신라는 제라동맹 기간

91)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라동맹을 흔히 ‘밀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중에 여라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동시에 두 개의 동맹관계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상대로 일종의 외교적 모험을 선택한 것으로, 이른바 ‘줄타기 외교’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사실상 신라가 제라동맹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신라가 백제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였다. 그리고 고구려가 백제의 뒤를 이어 동맹의 상대로 신라를 선택함으로써 당시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교섭 상대로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당시의 상황은 551년에 백제와 신라가 제라동맹을 바탕으로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직후에 고구려가 신라에 동맹을 제안함으로써 여라동맹이 성립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553년에 신라가 백제 동북쪽의 변경지역을 빼앗았고, 이곳에 신주를 설치함으로써 제라동맹이 실질적으로 결렬되었다. 이것은 신라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독단적인 결정이었지만, 백제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백제의 성왕이 곧바로 자신의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을 보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라동맹은 실질적으로는 결렬되었지만,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554년의 관산성 전투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산성 전투를 통하여 제라동맹이 종료되었듯이 고구려와 신라도 각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여라동맹 역시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으로 이해된다. 관산성 전투와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에 따른 영향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라동맹은 삼국 사이에 형성된 정세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여라동맹을 제안하였던 고구려는 제라동맹을 와해시킴으로써 서북방 지역에 좀 더 집중하며 중국을 재통일한 수와 대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동맹의 한 축인 신라는 한강유역과 낙동강유역을 장악함으로써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백제는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면서 다시 세력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여라동맹은 삼국 사이에 형성된 세력 균형의 추를 신라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다. 제려동맹의 영향

제려동맹의 성립은 신라가 백제의 침입을 받는 상황에서 삼국의 정세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642년에 백제는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실시하여 서쪽 변경지역의 요충지인 대야성을 비롯하여 40여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제려동맹을 바탕으로 고구려와 연합하여 당항성을 침입함으로써 당과 통하는 조공로를 끊으려고 하였다. 이에 신라는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하자 백제는 군사를 철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는 643년에 당항성 전투 이후에도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더욱이 645년에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때 신라가 지원하는 틈을 이용하여 신라 서쪽의 7성을 빼앗았다.⁹²⁾ 이것은 백제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제려동맹과 관련되어 백제가 고구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라를 침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⁹³⁾ 이후에도 백제의 침입은 655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백제는 645년부터 당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고, 648년에는 아예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⁹⁴⁾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백제가 멸망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주목

9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4년 여름 5월 ;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5년.

93) 김택원, 앞의 논문, 2022, 23~24쪽.

94) 김수태, 앞의 논문, 1991, 167~168쪽.

되는 것은 우연인지는 몰라도 백제가 당과의 외교관계에 변화가 발생할 때 공교롭게도 김춘추가 대당외교를 실시하면서 649년에 나당동맹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이다.⁹⁵⁾ 따라서 백제는 일시적으로 신라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는 있었지만,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둔 성과는 미비하였다. 그리고 당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면서 오히려 멸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백제의 제려동맹은 실패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려동맹의 또 다른 당사자인 고구려는 643년 당항성 전투 이후에도 연개소문의 대신라 강경책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리하여 644년에 신라를 다시 침입하였고, 당의 상리현장이 신라를 침입하지 말라는 중재도 거부하였다.⁹⁶⁾ 이러한 연개소문의 정책은 당이 삼국의 상황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제려동맹의 공통적인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즉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가 당으로 통하는 조공로를 막는다고 구원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당 태종이 삼국의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645년에 당 태종의 고구려 정벌로 이어졌지만,⁹⁷⁾ 백제가 남쪽 국경지역에서 신라를 군사적으로 견제해 줌으로써 당의 침입에 전념하며 이를 물리칠 수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제려동맹은 일단 성공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95) 김덕원, 앞의 논문, 2022, 30~32쪽. 김수태는 백제의 외교정책이 전환되면서 신라가 집중적으로 외교를 벌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백제와 당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되는 648년이 삼국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김수태, 앞의 논문, 1991, 168쪽). 그러나 김춘추의 대당외교를 통한 나당동맹의 성립은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신라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96)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보장왕 3년.

97) 이기동은 이른바 貢進의 차단은 당의 책봉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당이 고구려에 대해 강압책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였다(이기동, 「수당의 제국주의와 신라 외교의 묘체 -고구려는 왜 멸망했는가?-」, 『신라문화』 24, 2004, 17쪽).

그러나 고구려의 성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비록 당 태종의 침입을 물리쳤지만, 고구려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647년부터 당 태종은 고구려에 대한 침입을 다시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모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는 신라보다 당과의 관계에 더욱 전념하게 되면서 제려동맹도 종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나당연합군에 의하여 백제가 멸망하였고, 고구려 역시 연개소문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사이에 분열이 발생하면서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하였다. 제려동맹의 당사자인 백제와 고구려는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전개하였지만, 오히려 나당연합군에게 모두 멸망하면서 결과적으로 제려동맹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침입이 계속되자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써 당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는 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대당외교에 전념하였다. 이것은 결국 649년에 나당동맹이 성립하는 결과로 나타났고,⁹⁸⁾ 그 결과 삼국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삼국시대 동맹의 내용

순번	항목	명 칭						비 고
		제려동맹		여려동맹		제려동맹		
1	배경	백	고구려의 남진정책으로 위기 맞음	고	서북방 지역의 불안과 한강유역 상실	백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	
		신	고구려의 간섭을 받음	신	한강 상류지역 장악	고	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	

9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 이상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나당동맹의 결성」, 『신라의 삼국통일』,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6 : 주보돈, 「나당동맹의 시말」, 『대구사학』 126, 2017 ;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지식산업사, 2018 ; 김덕원, 앞의 논문, 2022.

2	제안	백제→신라		고구려→신라		백제→고구려		
3	성립	1차	433	551		643		제라동맹은 1차와 2차로 구분
		2차	539					
4	목적	1차	고구려의 침입을 공동 방어	고	서북방 지역의 안정과 제라동맹 와해	백	신라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제려동맹은 당이 개입 못하게 하는 것이 공통 목적
		2차	고구려에 대한 공동 공격	신	한강유역 장악과 가야지역 진출	고	당의 침입에 대비	
5	종료	1차	497	554		645		
		2차	554					
6	성격	1차	共守동맹	불가침동맹		共攻동맹		
		2차	共攻동맹					
7	결과	1차	백	고	성공	백	실패	제려동맹은 제려의 멸망으로 결과 적으로 실패
			신					
		2차	백	신	성공	고	성공	
			신					
8	영향	백	한성의 함락과 성왕의 죽음으로 세력 약화	고	수와 대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백	나당연합군에게 멸망	
		신	한강유역으로 진출하여 발전의 기반 마련	신	한강유역을 장악하여 삼국통일의 기반 마련	고	나당연합군에게 멸망	
		고	대내외적인 문제로 정체	백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의 진사	신	나당동맹으로 삼국통일을 이룸	

4. 맺음말

삼국시대의 동맹은 5세기 이후 한강유역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성립하였다. 그리고 5세기대의 제라동맹, 6세기대의 여라동맹, 7세기대의 제려동맹 등이 대표적이다.

삼국시대에 각국은 동맹마다 상호 목적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다르게 규정된다. 또한 동맹의 과정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등의 결과를 거두었고, 이에 따라 그 영향도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은 결과적으로 삼국의 정세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삼국시대의 동맹의 특징은 삼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동맹은 한 번도 없고, 특정 국가를 상대로 각각 다른 두 국가들이 상호 친선관계를 맺으며 성립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어느 한 국가만 일방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삼국이 각각 2회씩 참여하고 있다. 즉 백제는 제안 2회, 고구려는 제안 1회와 수용 1회, 신라는 수용 2회 등이다. 따라서 2회의 제안을 하였던 백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동맹을 주도하였고, 신라는 2회의 수용을 하였지만,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동맹 상대방의 중요성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삼국의 정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백제는 동맹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모두 실패하였고, 동맹을 주도하고 수용하였던 고구려는 모두 성공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동맹을 수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모두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백제와 고구려는 신라와 당이 주도한 나당연합군에게 멸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라가 최대의 이익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삼국시대의 동맹은 5세기 이후에 삼국이 상호 친선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당시의 대내외적인 정세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신라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주면서 결국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저서

- 노중국,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서울: 지식산업사, 2012
<http://uci.or.kr/G901:A-0006420490@N2M>
-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서울: 사계절, 1999
<http://uci.or.kr/G701:B-00060576971@N2M>
- 양기석, 『백제의 국제관계』, 서울: 서경문화사, 2013
<http://uci.or.kr/G701:B-00115263041@N2M>
- 이호영, 『신라삼국통합과 려·제 패망원인연구』, 서울: 서경문화사, 1997
- 주보돈, 『김춘추와 그의 사람들』, 서울: 지식산업사, 2018
<http://uci.or.kr/G703:RA101-01500601@N2M>

2. 논문

- 강민식, “5세기~6세기 중반 백제의 대외관계”,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http://uci.or.kr/G701:B-00102386215@N2M>
- 강종훈, “나제동맹의 결성 배경과 고구려의 대외관계”, 『대구사학』 105(2011):1-38
<http://uci.or.kr/G701:C-00056514602@N2M>
- 공석구, “‘나제동맹’을 다시 검토한다”, 『백제학보』 30(2019):5-27
<http://uci.or.kr/I410-ECN-0102-2021-900-000678490@N2M>
- 김덕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배경”, 『서울과 역사』 109(2021):7-46
<http://doi.org/10.22827/seoul.2021..109.001>
- 김덕원, “신라 진흥왕대의 한강유역 진출 과정”, 『군사』 121(2021)

:101-142

<http://uci.or.kr/G901:A-0010570790@N2M>

김병남, “5세기 말 백제와 신라의 협력 과정 재검토”, 『역사와 경계』 111(2019):29-61

<http://uci.or.kr/I410-ECN-0101-2019-911-000863906@N2M>

김병주, “나제동맹에 관한 연구”, 『한국사연구』 46(1984):25-47

<http://uci.or.kr/I410-ECN-0100-2009-911-018287731@N2M>

김수태, “백제의 멸망과 당”, 『백제연구』 22(1991):149-176

<http://uci.or.kr/G901:A-0000884042@N2M>

김창석, “6세기 전반 신라의 대외관계와 백제관”, 『사학지』 57(2018): 10-11
노중국,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역관계변화에 대한 일고찰”, 『동방학지』 28(1981):45-107

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1(2006):7-64

<http://uci.or.kr/I410-ECN-0101-2014-910-002361468@N2M>

노태돈, “고구려의 한수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3(1976):9-57

<http://uci.or.kr/I410-ECN-0101-2009-911-018386411@N2>

박윤선, “7세기 전반 삼국의 역관계와 백제의 대당외교 -백제의 입장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7(2007):3-41

<http://uci.or.kr/G704-000940.2007..27.004@N2M>

박윤선, “백제 국제관계사 연구동향과 시기구분 시론”, 『백제학보』 13(2015):47-91

<http://uci.or.kr/G704-SER000003883.2015..13.002@N2M>

방용철, “여·제 연합설의 재검토”, 『민족문화논총』 62(2016):277-314
선봉조, “7세기 제·려동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17)
선석열, “한강유역 쟁탈을 둘러싼 삼국의 동맹과 외교”, 『역사와 세계』 44(2013):81-119

<http://uci.or.kr/G701:A-00106608438@N2M>

- 양기석, “5~6세기 전반 신라와 백제의 관계”,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5(1994)75-98
<http://uci.or.kr/I410-ECN-0102-2009-910-009227039@N2M>
위가야, “나제동맹의 공수 전략 검토”, 『한국고대사탐구』 34(2020):
49-86
<http://uci.or.kr/G701:D-00117909427@N2M>
유우창, “5세기대 ‘나제동맹’의 성립과 가라국”, 『부대사학』 30(2006):
187-212
<http://uci.or.kr/G704+INS000006830-ART001335574@N2M>
유우창, “5~6세기 ‘나제동맹’의 전개와 가야의 대응”, 『역사와 경계』
72(2009):115-153
<http://uci.or.kr/G704-001396.2009..72.008@N2M>
이영재, “여라밀약설의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80(2015):81-116
이호영, “려-제연화설의 검토”, 『경희사학』 9·10(1982):17-34
정재윤, “웅진시대 백제와 신라의 관계에 대한 고찰 -나제동맹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호서고고학』 4·5(2001):67-86
<http://uci.or.kr/G704-001853.2001..4집.001@N2M>
정운용, “나제동맹기 신라와 백제 관계”, 『백산학보』 46(1996): 87-138
<http://uci.or.kr/G901:A-0002959528@N2M>
정운용, “『삼국사기』 교빙 기사를 통해 본 나제동맹 시기의 재검토”,
『백제연구』 44(2006):189-210
<http://uci.or.kr/G704-000844.2006..44.005@N2M>
주보돈, “웅진도읍기 백제와 신라의 관계”,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
서경(2003):181-238
주보돈, “5~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하여-”, 『북방사논총』 11(2006):65-115
<http://uci.or.kr/I410-ECN-0101-2014-910-002361473@N2M>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the Alliance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its impacts

Kim, Deok-won

The alliance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were closely related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each country in the process of dominating the territory of Han River basin after the 5th century. They include the Alliance of Baekje and Silla dynasty in the 5th century, the Goguryeo and Silla Alliance in the 6th century, and the Baekje and Goguryeo Alliance in the 7th century. In addition, not only did each alliance have different purposes and natures, but the consequences and impacts were also differ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liances of the Three Kingdoms era were that there was never an alliance in which the all three countries participated jointly, and two different nations formed relationship against a particular country. And the alliances were not just only one country participated unilaterally but the each three kingdom participated twice during the period of three kingdoms. And Baekje and Goguryeo were collapsed by the allied forces led by Silla and Tang dynasty. Silla actually achieved the greatest profit in the process of alliance during that period.

The alliance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influenced many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affairs of the Three Kingdoms after the 5th century. It also gave Silla a meaningful results and eventually Silla was able to achieve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Keywords : Han River basin, Baekje and Silla Alliance, Goguryeo and Silla Alliance, Baekje and Goguryeo Allianc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